

광주 남·서구 이어 북구서도 이물질 수돗물

문흥동·풍향동 1500가구 피해 3일 되도록 정확한 원인 못 밝혀 상수도본부 "관망 작업중 사고"

광주시민의 먹는 물인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여나오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일 남구 주월·월산동 및 서구 화정·염주동 일원에 수도관 코팅막 가루 등 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이 공급됐는데, 정확히 1주일 만에 북구 문흥동에서 흙이나 물때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가정과 학교에 공급된 것이다.

17일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부터 이튿날인 15일 오전까지 북구에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나온다는 주민 불편 신고가 관제 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 민원은 문흥동 광명아파트와 인근 학교, 풍향동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문흥동과 풍향동 일대 아파트 1500여 세대와 인근 학교 4곳에 탁한 수돗물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누수 시험을 하던 중 이물질이 발생한 수돗물이 아파트 물탱크와 일부 가정, 학교 등지로 흘러든 것으로 북구는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고 역시 노후 수도관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 외곽 택지지구로 연결된 상수도관은 모두 20~30년 이상 된 노후관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남구·서구 수돗물 이물질 유입 사고는 백운동 일대 수도관의 노후와 함께 주변 하수도 매설공사에 따른 공사 진동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도관 노후로 수도

관 내부를 감싼 코팅막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공사장 진동이 맞물리면서 코팅막 가루와 물때가 섞인채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됐다는 것이다.

상수도본부 측은 지난 11일 남구·서구 수돗물 이물질 공급 사고 브리핑에서 "추후 관련 사고시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 사고에서도 사고 발생 3일이 지난 이날까지 피해 규모는

물론 원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용섭 광주시장이 수돗물 이물질 사고가 난 북구 현장을 찾아 "시민의 생명 수인 수돗물 사고는 더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 수립을 지시했을 뿐이다.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이 시장 현장 방문 당시 상수도 관망 '블록고립' 작업을 진행하다가 흐린 물이 일시 가정으로 유입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록고립 작업은 블록 내의 흐린 물을 배출시키고, 새 물이 공급되는 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광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선진 수도 시스템인 '수도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나라고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밝히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17일 오후 북구 문흥동 일대 탁한 수돗물과 관련해 상수도본부 직원들과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 "어촌뉴딜 300사업 확대해야"

목포 방면 해수부 장관에 해양수산 현안 5건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촌뉴딜 300 사업을 대폭 확대해 열악한 전남의 해양 기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문성혁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건의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4일 목포의 고부까지 품종 양식기술 성공 현장을 방문한 문 장관에게 어촌뉴딜 300 사업 확대 등 시급하고 긴요한 해양수산 분야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어촌뉴딜 300 사업 확대 ▲어업 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 지정 ▲보성 울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 선정 ▲2020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 선정 등 5건이다.

김 지사는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나 오지에 위치해 있어 개발 여력이 부족한 어촌지역의 현대화를 위해 어촌뉴딜 300 사

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과 어업 재해 시 낮은 지원단가와 일괄적 지원 기준으로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을 위해 복구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의 광양항 배후단지가 2020년 소진에 예상되는 만큼 광양항 인근 세종산단 등 일반산업단지를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해 기업 유치를 통해 물동량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로 가장 많은 섬과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건의활동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신청사 개칭

대양산단에 지상 3층 규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 신청사 개칭식을 가졌다.

개칭식에는 박지원 대안신당 국회의원, 김중식 목포시장,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해양수산 유관 기관장, 수협 단체장, 어업인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청사는 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에 연면적 2705㎡ 규모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 관련 15개 실험실과 어장 관

측정보 통합관제실, 대화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췄다.

목포지원은 전남 서부권인 목포, 영암, 무안, 신안 4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어업인 지도 및 영어기술 교육, 전남 22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안전성 조사 업무를 한다. 특히 전남 서부권 어업인과 소통하고, 어업 현장 애로사항 지원 역할을 한다.

오광남 원장은 "목포지원이 전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서남권 어업인과 함께 수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롯데슈퍼 광주 봉선점에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

전남도가 농산물 판로 확보가 어려운 영세 고령농에게 새 판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롯데슈퍼 광주 봉선점에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16일 개장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롯데슈퍼 봉선점은 기존 '신선식품 매장'을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바꿨다. 화순 도곡에서 농사 짓는 45농가가 파프리카, 배추, 무 등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200여 품목을 납품해 판매한다.

로컬푸드는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 유통비용이 줄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주의 효과가 있다.

전남도는 롯데슈퍼와 손잡고 지난 7월 품안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 개장한 이후 두암점과 문흥점 등 4개 점포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잇따라 열었다. 나주, 곡성, 화순지역 140농가에서 생산한 로컬푸드 460여 품목에 대해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한다.

김영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로컬푸드가 농가 소득 향상과 안정적 먹거리 공급에 일조하면서 새 유통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며 "전남의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가 확산되도록 공급처를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은 4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참여 농가는 7900명으로 직매장별로 평균 202명이 참여하는 셈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내 유통 모든 타이어 영암서 안전 인증 받는다

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연구센터, 국내 유일 시험기관 지정 전남도, F1경주장 주변 미래차부품생산단지 조성 계획 박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인근에 자리한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연구센터'가 국가기술표준인증으로부터 국내 유일의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타이어는 연구센터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을 자동차부품생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 확인 시험기관

이 없어 한국·금호·넥센, 국내 타이어 3사와 타이어 수입업자는 '자체시험'으로 안전 확인 시험을 감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나 외국 국가별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해 안전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타이어는 연구센터의 시험을 거쳐야만 해 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센터는 연간 2억~3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을 전망이다. 여기에 유럽 수출 시 필요한 E

마크가 국내 KC인증으로 대체될 경우 매년 20억~30억원의 추가 수입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연구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 타이어 제조사와 국가 R&D를 통해 개발된 시제품 타이어의 내구 성능 평가를 진행, 타이어 시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4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타이어 주행내구시험기'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의 지원 아래 올해 2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17025) 자격을 시작으로, 10월 국가공인 검사기관(KOLAS 17020)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지난 6월 자동차

부품생산단지 조성 시 입주 희망 업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지역 업체 14곳을 포함해 총 22개 업체가 의향을 밝혀왔음에 따라 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을 자동차부품생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삼포지구의 일부를 기업도시 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접한 삼호지구로 편입, 개발해 2020년 말부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특수사업 외에 미래형 전기차 부품 개발사업과 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수소차 및 수소실증 인프라 구축사업, 스타트업 자동차부품업체 생태계 구축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점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